

도농공동체 운동의 추진방향*

김 호**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Urban-Rural Living Community Movement

Kim, Ho

Farm economy is getting worse because of the free trade trends in agriculture sector and unreasonable application of market economy principles to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worldwide issu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want of food, water and energy make human future be anxious. In addition, consumers raise questions in argument about safety of foods produced by traditional farming or imported. So I propose the urban-rural living community movement(URLCM) as an alternative plan for sustainable domestic agriculture. URLCM based o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community consciousness will be able to solve many of present issues o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through incessant interchanges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This URLCM has to be basically founded on principles of symbiosis-coexistence and life circulation. So those that have to be driven forward are organizing producers and consumer cooperatives, mak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region and products, combining with consumer cooperatives, training the participants and so forth.

Key words : farm economy, urban-rural living community movement, food safety, principles of symbiosis-coexistence and life circul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region and products

I. 문제의 제기

UR 협상과 WTO/DDA 협상, 한칠레 FTA 타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이 악화

* 이 연구는 200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시장경제 일변도의 관점, 시장경제원리를 절대적 가치로 간주하는 관점을 농업에도 적용함으로써, 농산물도 철저히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수출국과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 식량시장의 독점화가 진전되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위기상황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문제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는 일찍이 환경오염과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물 부족 등 때문에 인류의 생존 자체에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인간의 환경파괴 행위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인간을 역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행농업은 농업생산성과 겉모양 및 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성장조정제 등 합성화학자재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기준은 안전성과 건강 및 영양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높은 지불의사가격을 나타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면적 및 시장규모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식품오염 및 비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농업기반의 붕괴와 농가경제의 악화, 환경파괴와 식품안전성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 하나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을 테마로 한 도농생활공동체 운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농가경제의 악화와 친환경농업의 확산

1. 농가경제의 악화

농가경제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농가교역조건을 살펴보았다. 농가교역조건은 농가 판매가격지수(농산물 판매)와 농가구입가격지수(공산품 구매)간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농가교역조건을 비교해 볼 때 1997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7년에는 95.8이었으나 1998년 86.4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89.5로 약간 상승하다가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86.0과 83.5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것은 농가소득의 원천인 농산물 판매가격 수준이 농가가 지출하는 공산품 구입가격 수준보다 더 낮아, 농가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농가교역조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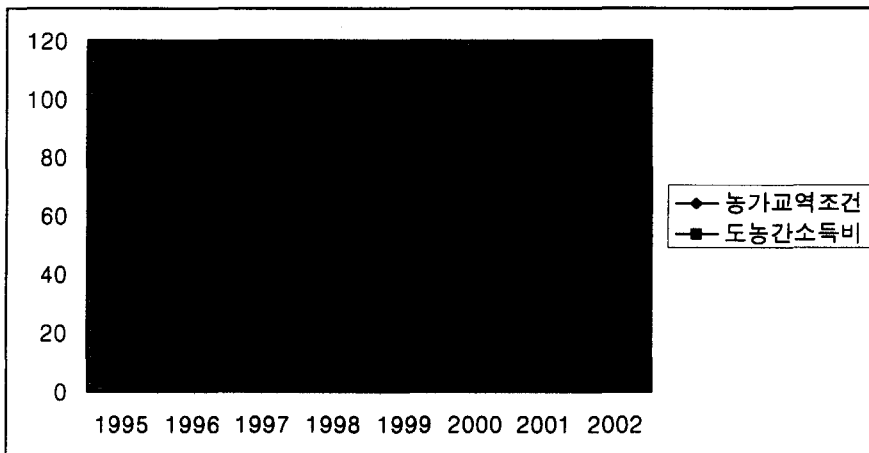
1995=100.0

| 구 분 | 1980 | 1985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농가판매가격지수 | 39.3 | 54.6 | 73.7 | 100.0 | 105.2 | 102.2 | 101.9 | 108.5 | 109.6 | 116.4 |
| 농가구입가격지수 | 39.8 | 58.3 | 75.4 | 100.0 | 104.3 | 106.7 | 118.0 | 121.2 | 127.5 | 139.4 |
| 농가교역조건 | 98.7 | 93.7 | 97.7 | 100.0 | 100.9 | 95.8 | 86.4 | 89.5 | 86.0 | 83.5 |

주 :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표 2> 및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바, 도농간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앞질렀으나, UR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1995년에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95.1%이었는데 1996년에는 90.2%, 1997년에 85.6%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에는 75.9%와 7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농가교역조건 및 도농간 소득비교

이러한 농가경제의 악화 추세는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DDA 협상, FTA 체결, 쌀 재협상 등으로 수입개방이 진전되고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농특위, 2002). DD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관세 감축률 상승과 국내보조 감축, 개도국 지위 유지의 불투명으로 UR보다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도농간 소득비교

(단위 : 천원, %)

| 구 분 | 1985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농가소득 | 5,736 | 11,026 | 21,803 | 23,298 | 23,488 | 20,494 | 22,323 | 23,072 | 23,907 | 24,475 |
| 도시근로자소득 | 5,085 | 11,319 | 22,933 | 25,832 | 27,448 | 25,597 | 26,697 | 28,643 | 31,501 | 33,509 |
| 비 교(A/B) | 112.8 | 97.4 | 95.1 | 90.2 | 85.6 | 80.1 | 83.6 | 80.6 | 75.9 | 73.0 |

주 : 비교(A/B)=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또한 중국이 쌀, 채소류 등 관심 품목의 예외 없는 시장개방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며, 실제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FTA에서 농산물의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쿼터제 도입 등 보호막을 설치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협상태도를 보면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불투명하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MMA 증량 등 다른 부분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농가부채 현황

농가 호당 부채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또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농가부채에는 생산성 부채와 가계성 부채가 있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 5배 정도 더 많다. UR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90년에는 호당 약 4백 7십만원이었는데 1995년에 약 9백 1십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약 2천만원으로 급증하였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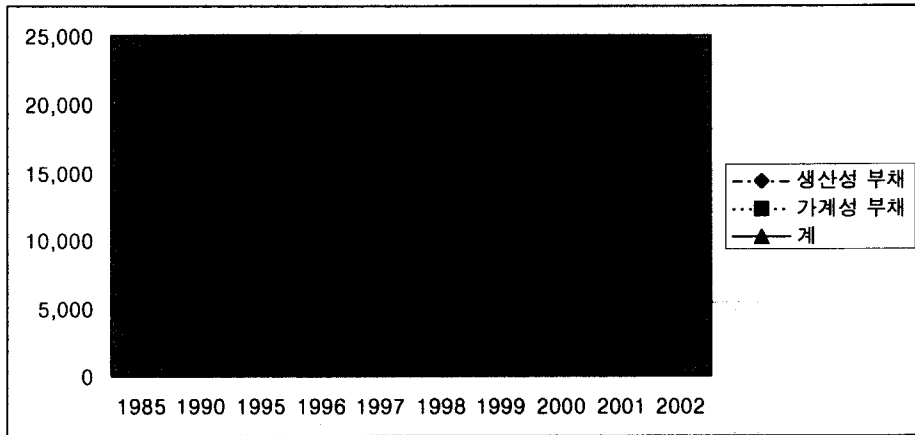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성 자금인 가계성 부채의 증가율보다 농업경영 및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생산성 부채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의 자연적 및 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바, 시장경제 일변도의 관점만으로는 농업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와 함께 농가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호당 농가부채의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1985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생산성 부채 | 1,306 | 3,146 | 7,331 | 9,136 | 9,781 | 12,958 | 14,054 | 15,159 | 15,282 | 15,024 |
| 가계성 부채 | 476 | 1,015 | 1,110 | 1,458 | 1,775 | 1,711 | 2,112 | 3,882 | 4,015 | 3,913 |
| 계 | 2,024 | 4,734 | 9,163 | 11,734 | 13,012 | 17,011 | 18,535 | 20,207 | 20,376 | 19,898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그림 2〉 호당 농가부채의 변화 추이

3.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안전성과 원산지, 영양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건강유지에 중요하며, 농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와 품질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응답자의 1/2 정도만이 신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로서, 가족의 건강과 식품안전성이라는 응답이 각각 약 34%와 약 39%로서 전체의 7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생산방식 자체가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맛이나 품질이 우수해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4.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증가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농가 수와 생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약 21.3%와 22.1%이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시면적으로 추정된 생산량은 2002년에 약 59만 4천톤 정도로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에는 약 10만 3천톤이었으며, 1998년에는 약 15만 5천톤, 1999년 211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연평균 약 28.8%씩 증가해 왔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02년에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3년에는 4,000억원, 2006년에는 6,000~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유통방식은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제휴하는 직거래 유통 비중이 약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75%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수퍼마켓, 전문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식품가공업체 등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의 백화점과 풀무원, 삼양사, 동원 등 대형식품업체들의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표 4〉 친환경농업의 변화 추이

(단위 : 천호, 천ha, 천톤)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연평균 증가율 |
|-------|------|------|------|------|------|------|------------|
| 농 가 수 | 9 | 13 | 14 | 19 | 27 | 31 | 21.3% |
| 생산면적 | 7 | 11 | 10 | 15 | 25 | 28 | 22.1% |
| 생 산 량 | 103 | 155 | 209 | 305 | 526 | 594 | 28.8%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런데 2003년부터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품질인증 건수는 2건이고 농가 수는 6호, 면적은 14,374천m², 인증물량은 258톤이었고 전량 유기재배 인증을 받았다. 총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대비 비율은 6.5%이고, 총 인증물량 중 0.1% 비율이며, 유기재배 인증 총 물량에 대해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수입하여 인증을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법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도농 생활공동체 운동의 기본원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끝없는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을 추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더욱이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환경오염과 식량, 물,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¹⁾

1) 2004년 2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가 ‘20년 안에 전 지구의 기상재앙, 테러보다 더 안보위협’이라는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 국방부는 앞

이와 같은 현실과 전망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계적 및 국내적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운동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념과 목표 및 방향 등을 정립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즉 농촌운동의 목표와 방향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이 공생 공존하는 도농공동체의 형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도농 생활공동체 운동은 공생·공존의 원리와 생명순환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초래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파괴와 식량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지역과 환경·생명, 미래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1. 공생·공존의 원리

공생(共生)이란 서로 살아가고 살리는 다양한 관계를 모든 장에서 발견·창조해 가는 것을 말한다. 공생·공존의 자연계는 식물이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이 식물의 비료가 되며, 탄산가스와 산소의 순환 등의 상승작용과 반복회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계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의 어느 하나만의 단독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이 농업은 작물과 작물, 동물과 식물, 동식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도농공동체는 인간과 인간의 공생·공존관계라는 범주이며, 인간사회의 본질인 공생철학의 전 체계를 완성한다.

인간이 이 원리를 경시했을 때 그 대가는 궁극적으로 인간 즉,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예컨대 생산자의 농약중독 현상과 자연재해, 소비자의 잔류농약에 의한 각종 질병 감염, 인간간의 지배 및 피지배 관계, 억압, 강제, 전쟁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생·공존이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농·공·상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독자성이 존중되면서 대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 풍요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도농공동체 운동에서 공생·공존의 원리는 직접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의 공생·공존관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관계의 표출에 기초가 되는 농업생산방식

으로 20년 안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종교 갈등이나 테러 등 기존 요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비밀 보고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즉 기후 급변으로 각국이 식량과 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 무장에 나서게 되면서 전 세계는 전쟁과 대가뭄, 기근, 폭동 등으로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 등 유럽의 해안 주요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고, 영국의 기후는 2020년이 되면 시베리아성 기후가 될 것이라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가 과학적 논란의 대상을 뛰어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적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는 것이다.”

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공존의 원리가 관철되는 환경 및 생태친화적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농공동체 운동을 통해 공생·공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정직, 겸허, 성실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여 강제하지 말고, 저절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거나 상호 노력하는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도농간 어느 부문에서도 지배와 피지배, 관리 및 강제를 행하지 말고 자발성과 자립성에 기반을 둔 대등한 입장에서 협동을 발휘하여야 한다. 넷째, 공생·공존의 사회관계에서는 물질과 관계의 가치를 좁은 척도로서 고정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창조한다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동적인 행위가 큰 의미를 가진다.

2. 생명순환의 원리

도농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순환의 원리가 존중되는 농업생산방식이 중요하다. 원래 농업은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중시하며, 생명순환의 원리에 입각하였다. 따라서 농업의 철학에는 일반적인 생명관보다 훨씬 확대된 그 나름대로의 생명관이 있다. 그래서 농업의 생명관은 농업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으로 이용되는 동식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식물은 토양 속의 생명체인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생명관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자연속의 미생물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간의 균형상태가 파괴되고 순환이 단절되면, 각 생명체의 존립은 위협받게 된다. 예컨대 미생물의 사멸에 의한 토양구조의 파괴, 수질정화기능의 저하, 경지의 사막화, 동식물의 불건전한 생육 등이 초래되고 삼림의 파괴에 의해 산소의 부족과 대기정화기능의 저하, 홍수, 이상기온 등이 발생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불건전한 환경 속에서 불건전하게 생육된 동식물을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인간 생명은 한층 더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도농공동체 운동은 생태계 순환체계의 단절과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생명순환의 원리가 관철되는 농업생산방식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IV. 도농공동체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추진방향

1.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의의와 추진방향

1) 생협운동의 목표

생협운동의 목표는 도농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지향,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대량생산·대량 소비 양식에서 비롯된 생태계의 파괴, 생활환경 오염의 심화, 증산을 위한 과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투여로 농업생산기반의 열악화 등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은 환경친화적 농업경영방식에 의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친환경적 및 재활용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는 자연자원 및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장려와 소비, 먹이사슬(food chain)이 짧은 식품의 사용, 제고장 제철에 나는 농산물, 쓰레기가 덜 나오는 농산물 등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현대 생활양식인 생산과 소비의 분리에 의해 초래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자는 농약중독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도농공동체를 형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 교류하여야 한다.

농촌의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은 회원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 생산 및 유통의 공동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유지 보전하며,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미분리되고 생산활동에 있어 협동화가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공동의 경제 및 문화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업농의 진전과 기계화, 이기주의적 사고의 확대 등에 의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시 소비지역에서는 직업의 분화 및 다양화와 전문화, 도시생활의 익명성 및 이기주의와 폐쇄성 등이 지배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문화도 형식적이고 이기적이며, 외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생협운동은 소비자가 전통적인 공동체적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도농간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2)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및 주요 사업

생활협동조합은 기존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운영의 7가지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의 자발적 조직이다. 즉, 자신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주체적으로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둘째, 자조, 자립, 자치의 생활공동체 조직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협동조합이다.

셋째, 조합원 모두를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조합원의 공평한 출자로 조합의 자본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출자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또한 사업 잉여금은 이용량과 출자액에 따라 배당된다. 따라서 조합원이 스스로 출자·이용·운영하는 비영리적인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문화의 향상, 안전한 식품 및 생활재의 공급으로 생명보호와 소비생활의 개선,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교육과 문화활동 등에 있다. 그래서 생협의 주요 활동으로는 생활물자 구매공급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사업, 문화복지사업,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 활동, 교육 및 조사홍보사업 등이 있다.

생활물자 구매공급사업은 대부분의 생협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이다. 이것은 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환경친화적인 생활용품 및 재활용 물품, 예컨대 우유팩으로 만든 화장지·노트와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세탁비누·가루비누·고체비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문화복지 사업으로는 주로 의료생협의 주민 또는 조합원에 대한 보건예방활동과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 활동으로는 생활하수의 대표적 오염원인 합성세제 대신에, 환경친화적인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로 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다.

3) 생협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의의

생협운동은 주로 생활물품의 직거래를 매개로 하여 추진된다. 생협 직거래는 비영리단체인 협동조합이 유통주체가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직거래의 목표도 가격이나 이윤 등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협운동에 필요한 철학적 또는 이념적인 측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활동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생협 직거래의 경제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장에서 요구하는 불필요한 규격화 및 등급화에 드는 비용과 과잉 포장에 따른 포장비용, 각종 수수료 등 유통비용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중간상인이 수취하는 과도한 상업이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생산자가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생협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행사를 통해 대면할 기회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생협 직거래운동의 사회 문화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화와 전문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과 도시간 문화적, 전통적인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생협 직거래운동은 농산물의 거래 뿐 아니라 도농간 생활공동체 형성, 환경보전과 협동조합의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도농간 사회문화적 이질감과 괴리감의 폭을 좁혀 전통과 의식, 생활양식 등 측면의 공통점을 회복할 수 있다.

더욱이 생협의 농산물 직거래는 농촌지역의 생산물을 매개로 하여 동질감과 유대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문제가 농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전 국민적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농산물은 그 지역의 자연기후와 인간, 노동, 물, 공기, 토양, 기술, 정신 등 다양한 측면의 지역적 조건을 이용하여 생산된 지역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농산물의 소비는 실제로 생산된 지역의 농업문화와 전통을 소비자가 흡수하고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는 생산자가 한 지역의 유형적 및 무형적 문화를 흡수·이용하여 생성시킨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줌으로써, 상호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4) 친환경농촌 지역의 형성²⁾

친환경농촌 지역의 형성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지역자립 시스템(지역의 독자성, 주체성, 협동성)의 구축과정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역산업 개발 정책 추진을 통하여 지역자치, 지역자원의 활용, 농가소득 증대, 주민복지 증진, 지역환경의 보전, 전통생활 문화의 계승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촌 지역형성 단계는 먼저, 친환경농업의 기반 확립, 친환경 유기순환시스템의 구축과 친환경농업 지역의 산업적 기반 구축, 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촌 지역으로 완성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등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촌 지역 형성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의 유지 보전과 도농공동체의 교류 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바, 친환경농촌 지역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합의 도출과 생산자의 조직화 및 지도자의 발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각종 부존자원 즉 농업자원과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 전통문화자원 등의 최대한 활용,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의 실시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기반 하에서 도시민의 수요를 연중 유지 확대, 친환경농촌 지역범위의 점진적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호(2003a)를 참조.

2. 생협운동의 주요 추진과제

생협운동은 공생·공존의 원리와 생명순환의 원리에 입각한 도농공동체 운동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생협운동과 친환경농업 실천, 친환경농촌 만들기 등은 기본적인 실천과제이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됨으로써 자생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도농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 등 주체세력의 형성,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 구체적인 실천 활동 등 필수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생협이 도농공동체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에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자조직이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촌지역의 주체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마을이나 면단위를 기본으로 주민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여건의 유리성과 생산기술의 습득 및 훈련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지역에서 생협 등 친환경 소비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지역의 주체세력으로서, 생협은 환경친화적이고 공동체적 의식을 갖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여성회원을 중심으로 생협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미 도시에는 지역별로 생협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새롭게 생협을 구성하려는 소비자조직은 이미 활동 중인 생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시작할 수 있다.

셋째, 생협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지역별 생협 네트워크를 추진한 다음, 수도권 네트워크, 전국적인 네트워크 등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농촌지역에 가까운 도시생협은 인근 생산지간 지역내 직거래와 공동활동 및 행사를 통해 도농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협간 도농공동체 운동에 있어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 지역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이다. 또한 도시지역 생협간 네트워크는 상호 정보교류와 교육 및 훈련의 공동 운영, 공동 물류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생협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농업 및 도농공동체 운동, 생협운동 등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녹색농촌 강좌나 친환경 소비자 강좌 등의 개설이 필요하다. 만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에 개설되어 있는 관련 강좌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도력을 가진 주체가 필수적이다. 생산자의 경우, 농촌을 조직화하고 운영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자발성과 의욕을 고취하는 지도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 인간중심적 환경 개념에서 생태(생명)중심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생협

을 이끌어갈 자발적 참여자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생활에서의 생태친화적·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생협 지도자는 생협 회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급식 및 도농간 자율적인 사회적 교류 협약의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학교급식 운동의 전개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더욱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친환경 농업 기반 확보 뿐 아니라, 성장 발육이 활발한 어린학생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전성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친환경 유기농업 및 도농공동체 운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작년에 추진한 서울YMCA와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간 사회적 협약 체결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인 바, 이러한 협약 방식의 공급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V. 결 론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에 대한 시장경제 일변도 관점의 도입과 무리한 적용은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오염과 식량 및 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관행농업과 수입농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공동체 운동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과 도농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도농간 지속적인 교류의 확대를 통해 농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도농공동체 운동은 공생·공존의 원리와 생명순환의 원리에 입각하여 생명·환경과 지역, 미래를 살린다는 의식을 기초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서 생산자의 조직화와 도시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친환경농촌 지역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생협간 연대, 도농공동체 운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지역 농업자원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농업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의 유희자원과 부산물 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지역으로서의 산업기반 뿐 아니라 도농간 교류의 장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 호. 2003a.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1(4).
2. 김 호. 2003b. 수도권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행태 분석. 식품유통연구 20(3).

3. 김 호. 2004. 21세기 YMCA 농촌운동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향. 양곡은행 30주년 기념심포지엄. 서울YMCA.
4. 농림부. 2003. 농림업 주요통계.
5. 농특위. 2002.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6. 윤석원 외. 1999.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유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부.
7. 조완형. 2004.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유통의 실태와 개선과제. 농정연구센터 제128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8. 허승욱·김 호. 2003. 수도권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 분석과 소비확대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1(4).
9. 井上和衛 外. 1999. 地域經營型グリーン・ツ・リズム. 都市文化社.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